

안철수 정치재개...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지원여부 등 관계 설정 놓고 내용 가능성 복잡한 속내...재보선 전략구도 차질 우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정치 재개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철수 전 교수의 정치 재개가 대선 패배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안 전 교수에 대한 지원 여부 등 관계 설정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내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벌써부터 당내에서 안 전 교수에 대한 지원 여부와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내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단일화'를 상기시키며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노원 병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안 전 교수의 노원 병 출마는 오만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교수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라며 "하지

만 지난 대선에서 진 빛도 있고 보다 큰 그림을 위해 안 전 교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는 민주당의 재보선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재보선인 만큼 필승 전략이 절실하지만 안 전 교수의 등장으로 인해 재보선의 구도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안 전 교수가 가세하면 전통적 양자 대결구도도 새누리당, 민주당, 안 전 교수 등 3자 구도로 전환되고 이는 야권 표심 분산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안 전 교수가 신당 창당을 추진할 경우 정치권의 새 판 짜기에 휩쓸리면서 자칫하면 민주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대선 패배 책임론과 5·4 전당대회 당권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안 전 교수의 등장은 당의 원심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안 전 교수와의 관계 설정 자체가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4월과 10월 재·보선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철수 발

정계개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러야 10월 재·보선일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깨고 안 전 교수가 4월 재·보선으로 등판시기를 앞당긴 것은 향후 정국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안 전 교수의 등장은 리더십 부재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안 전 교수가 4월과 10월 재·보선 등에서 어떠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야권 재편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재보선 출마 새누리 "신경쓰이네"

공식 반응 자제 속 미칠 파장 촉각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4·24 재보선 출마 파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에게도 미치는 분위가다.

새누리당은 겉으로 "이미 안 전 원장의 정치권 복귀는 예견됐던 것 아니냐"면서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은 채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안 전 원장의 출마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식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안 전 원장의 출마에 호들갑을 떨 경우 오히려 상황을 크게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역대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었다. 더욱이 대선을 이긴 새누리당에게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열리는 재보선은 이겨도 본전인 선거다. 따라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회 3석에 불과한 이번 재보선을 조용히 치르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안 전 원장의 출마로 이미 이번 4월 재보선은 의석 수에 상관없이 정치적 의미가 커진 선거가 됐다. 개 일반적 평가다. 더욱이 정권 초반부터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 난맥이 나타나고 있어 안 전 원장이 새 정치를 내세우며 나서면 여론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날 초 재보선 공천심사위 구성에 앞서 대항마로 내세울 후보 물색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핵심 당직자는 안 전 원장의 출마에 대해 "삼성이 동네에 뺑뺑이를 내놓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유력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던 안 전 원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에 출마한 점을 꼬집은 것이지만, 새누리당의 답답한 속내가 여실히 반영된 언급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사단' 전열 재정비 '정치 세력화' 초미의 관심

신당 창당 등 돌풍 예고...광주 시민포럼도 가세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가 4월 노원 병 보궐 선거 출마로 정치 재개 신호탄을 쏜 가운데 안철수 신당의 세력화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안 전 교수는 4월 재·보선을 거쳐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 동안 신당 창당을 위한 수순을 밟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과거 대선 조직을 재 정비하고 새로운 정치 여파를 마련 등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 측이 신당 창당 이전에 연구소나 재단 등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1차적인 조직 재정비는 현재 '안철수 사단'의 골격을 이루는 대선 캠프 출신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과 박선숙·김성식 전 의원, 국민 정책본부장 출신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비롯, 비서실장을 맡았던 조광희 변호사,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태섭 변호사,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강인철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안 전 교수의 미국 체류 기간에도 안 전 교수와 꾸준히 접촉하며 향후 정치 일정을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김형민 전 기획실장, 하승찬 전 대외협력실장, 박인복 전 민

원실장, 정기남 전 비서실 부실장, 허영 전 비서실장, 이상갑 전 민원팀장, 김경복 전 기획팀장 등도 안 전 교수가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사단'은 일단 안 전 교수의 4월 재보선 승리가 최우선 목표가 된 만큼 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과거 대선 조직을 재 정비하고 새로운 정치 여파를 마련 등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 측이 신당 창당 이전에 연구소나 재단 등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1차적인 조직 재정비는 현재 '안철수 사단'의 골격을 이루는 대선 캠프 출신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과 박선숙·김성식 전 의원, 국민 정책본부장 출신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비롯, 비서실장을 맡았던 조광희 변호사,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태섭 변호사,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강인철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안 전 교수의 미국 체류 기간에도 안 전 교수와 꾸준히 접촉하며 향후 정치 일정을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김형민 전 기획실장, 하승찬 전 대외협력실장, 박인복 전 민



민주당 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가운데) 등 소속 위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 여론몰이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중환, 최민희, 유승희, 정병완, 배재정 의원. /연합뉴스

노회찬 "안, 노원병 아닌 부산 영도서 출마해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4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24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노원 병 지역에서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노원병은 안 전 교수가 오지 않더라도 야권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가난한 집 가정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 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 먹느냐"라고 비판했다.

'안 전 교수가 노원 병 대신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르렀던 길도 그런 길 아니냐. 제가 안 교수라면 그런 길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전날 안 전 교수와의 통화 등에 대해 "판결에 관해 위로의 얘기를 했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짧은 통화"라며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1시간 반 전에 전화해서 간단한 통화를 한 뒤에 마치 양해를 구한 것처럼

각분을 짜 맞추듯이 하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고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안 전 교수 측의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당으로서 비전과 새로운 정치행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선 때 같은 기대는 거품이 많이 걸리지 않을 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 등 65%

"안철수 입당땐 환영"

민주당 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입당한다면 이를 환영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93명의 설문 대상자 가운데 65% 가량이 안 전 교수가 입당해 민주당을 고지려 한다면 이를 환영하겠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이 안 전 교수 영입에 필요한 조건을 얼마나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위원장은 "설문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이 생긴다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당내 후보 경선에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잡음을 일으켰던

모바일 투표는 부작용이 엄청나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동시에 국민 참여를 늘리려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은 대선평가를 두고서는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잘 못해 졌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선 패배와 관련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는 도덕적 무책임의 '아노미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수가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월 전당대회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기도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며 "민주당이 중도개혁 노선을 추구해 민생밀착형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는 이날 한 위원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1차 대선평가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2012. 3. 4(월) ~ 2013. 6. 17(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함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 ~ 17:00 - 야간반 18:00 ~ 21:00
- 수료 후 특전: 기초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jne.go.kr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도철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임/투,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92천 매도가 99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2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2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대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63평 30m 도로결,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6만원
-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 비어있는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정성군 황룡면, 창성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던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상사건내편

투자 하실 분

▶물건: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1억원 이상
▶기간: 1년정도
▶수익: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NPL과 특수물건
▶시간: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550만원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